

농어업 혁신의 싹, 투자로 꽃피우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미래기술특별위원회,
제3회 농림수산미래기술포럼 개최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5일 서울 강남구 aT센터에서 제3회 농림수산미래기술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농어업 혁신의 싹, 투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지난해 4월 구성된 미래기술특별위원회(이하 기술특위, 특위위원장 민승규) 위원과 벤처투자자 등 다양한 농어업분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발전된 기술을 농어업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장태평 위원장의 개회사와 “오늘 이 자리가 농어업 투자시장 생태계 조성에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농식품모태펀드가 민간투자 유치와 혁신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은 1부(농어업 분야 혁신기술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신개념 초고밀도 전자동 수직농장’을 주제로 1부의 막을 연 farm360.ai 이인중 대표와 ‘한국형 스마트팜 구축 및 디지털 강소농 확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넥스트온 최재빈 대표는 스마트팜의 미래성과 각 사가 가진 기술역량을 강조해 벤처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룡야 권민수 대표는 ‘AI 기반 농산물 계약재배 시스템’을 주제로 “적절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계약재배로 물가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다”며 농업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부 ‘농식품 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에는 40여개 운용사가 참석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2024년 농식품 모태펀드는 13개 자펀드를 2,430억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으로, 그린바이오펀드, 푸드테크펀드 등 선도분야펀드뿐 아니라 1차 농산업에 투자하는 영과머스펀드 등을 결성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자조합 선정 후 자진철회하는 운용사의 경우 출자사업 참여제한 페널티를 미부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하였다.

마지막 3부는 ‘혁신기업과 투자자의 만남’을 주제로 투자설명회(IR)가 개최되었다. 스마트팜 분야 엘앤피 박은호 대표, 유통분야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 축산 분야 푸디웍 김태훈 대표, 수산 분야 봉선장 이봉국 대표가 각각 자사의 경쟁력과 강점을 소개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제3회 농림수산미래기술포럼은 현장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VC 운용역들을 모시고 진행하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위는 혁신기업과 투자자 간 매개 역할을 강화해 우리 농어업이 성장하는데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 첨부: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농수산식품팀	책임자	팀 장	박천일 (02-6260-1231)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2-6260-1232)